

2/11(금) 민수기 16-18장 권위에 불평하다

고라와 다단, 아비람이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습니다(16:3).
나서지 않았을 뿐 백성들도 동일한 입장이었습니다(16:34,41).
맞서던 아론이 이제는 당하는 입장입니다(12장).

고라는 레위인의 입장을 대변합니다(16:1,8-11,16-17).
고핫 지파는 가장 성스러운 기구들을 담당했지만,
직접 집기를 보거나 만질 수 없었습니다(3:31)
제사장이 준비하고 레위인은 옮길 뿐이었습니다(4:4-20).

<다단과 아비람>은 르우벤 지파를 대변합니다.
그들은 장자 지파이면서도 선두에 서지 못했습니다(2:3,10:14)
가담한 지휘관들은 아론의 제사장직과 권위를 요구했습니다.
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를 부정한 것입니다.

백성들이 입에 올렸던 원망이 현실이 되었습니다(13:32)
하나님께서 땅을 가르시고 반역자들을 삼키게 하셨습니다(16:31-33).
아론 역할을 하려던 250명은 나답과 아비후의 뒤를 따랐습니다(16:35).
그럼에도 계속해서 원망하던 백성들은 염병으로 죽습니다(16:47).
아론은 자기 직임을 수행하여 백성들을 살립니다.

모세는 자기 임의로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(16:28).
제사장은 공동체를 보호하려 존재하는 것입니다(16:47-48, 18:1-5).
레위인은 성막과 백성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해야 합니다.
그들은 특별해서 그 자리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.
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.

하나님은 혼돈을 바로 잡으시고 질서를 회복 하십니다(17장,18:1).
각각의 정체성과 직무, 몫을 분명히 하십니다(18장).

나는 각자 받은 임무와 권위가 있음을 인정합니까?

- ❶ 나의 직무를 특권으로 여기고 권위를 남용하고 있지 않습니까?
- ❷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며 시기하고 탐하지 않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민수기 16-18장